한국 사회와 문화다양성: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의미와 과제*

한건수**

요약

본 논문은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문화다양성 협약)’이 한국사회에 갖는 의미와 과제를 분석한다. 먼저 한국정부와 시민사회가 2005년 문화다양성 협약 체결 과정에서 협약의 필요성을 국내외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 체결이후 문화다양성 관련 논의와 조치가 급속도로 사라진 이유를 유네스코의 문화 개념과 문화다양성 논의에 대한 부족한 이해, 문화운동의 전략적 구호로 축소된 상황에서 찾고 있다. 논문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창립 이래 문화의 의미와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발전시켜 왔는지, 문화 개념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문화다양성 개념이 확대되는 과정은 어떠한지를 분석하여 제시한다. 한국정부는 오랜 침묵 후에 2010년 협약을 국회에서 비준하고 2014년에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 논문은 법안 제정 이후 새롭게 동력을 받고 있는 문화다양성 관련 논의와 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유네스코의 문화 개념과 문화다양성 개념을 충분히 이해해야 함을 강조한다. 최근 정부 일부에서 혐의의 문화개념으로 문화다양성 정책을 추진한 내용을 보면, 2005년 유네스코 협약이 문화상품의 예외성으로 축소되어 인식됨으로써 문화다양성 협약의 가치와 역할이 축소된 우려 반복할 위험이 보인다. 이 논문은 문화 및 예술에 국한된 문화다양성 사업이 유네스코 본연의 문화개념으로 돌아가야 한국 사회 내부의 문화다양성이 보호되고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주제어 : 문화개념, 문화다양성 협약,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다문화사회

* 2013년도 강원대학교 학술연구구성비로 연구하였음(과제번호-C1009791-01-01).

이 글은 제11회 문화예술지식정보 콜로키움 ‘한국의 문화다양성 정책, 이제 시작이다’(2014.10.21)에서 발표된 발표문을 대폭 수정 보완하여 논문으로 구성한 것이다. 포럼에서 발표된 원고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문화예술지식DB 인터넷 사이트에 실려 있다.

**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yoruba@kangwon.ac.kr

I. 들어가는 글

유네스코는 2005년 오랜 논쟁과 협상 끝에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문화다양성 협약)을 체결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은 후 평화의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유네스코가 문화다양성 의제를 집요하게 추진해 온 이유는 무엇일까? 유네스코 헌장(1945)은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며,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라 선언한다. 이어서 서로의 풍습과 생활에 대한 무지가 상대방에 대한 의혹과 불신의 원인이었고 이러한 불신은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전쟁을 불러 일으켰다고 진단한다. 문화 간 이해의 필요성은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의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임을 강조한 것이다 나아가 유네스코 헌장은 1조 3항에서 회원국들의 독립성과 완전성(integrity)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각 회원국 문화의 ‘풍요로운 다양성(fruitful diversity)’을 유지해야 함을 강조한다. 즉 문화다양성의 풍요로움을 국제사회가 보호하고 증진시키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유네스코가 꿈꾸는 평화의 문화를 구축하는 핵심 과제라는 것이다.

유네스코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문화의 개념, 문화와 발전의 관계, 문화상대성의 내용과 범위를 오랜 시간 토론해 왔다. 유네스코가 ‘문화다양성 선언’(2001)을 이끌어 내고 마침내 실질적 구속력을 갖는 ‘문화다양성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유네스코의 이상을 구현해 내려는 의지의 표현이고 중요한 성취라 할 수 있다.

한국사회는 유네스코와 다양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한국전쟁 직후에는 유네스코의 지원으로 교과서를 발간할 수 있었고 이후 문

화유산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문화다양성 협약 체결 과정에서는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 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했다. 한국정부는 문화다양성 협약 체결 과정에서 미국이나 일본의 적극적 반대 주장과 달리 유네스코가 제안한 문화다양성 협약에 동의했고, 문화관련 시민단체들도 협약 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연관 단체들과 함께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협약 체결 과정에서 벌어진 각국 정부단의 치열한 논쟁에서 한국의 스크린쿼터(Screen Quarter) 제도가 자유무역에서 문화 산업의 예외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정책 사례로 인용되기도 했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문화다양성 협약 추진 세력은 문화 산업의 예외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징적 정책으로 한국의 스크린쿼터 제도를 홍보했으며 한국의 영화인들도 앞장서서 홍보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당시 한국의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문화다양성 협약 체결을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정이나 지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문화시장 개방에 저항하는 중요한 투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문화다양성 의제는 문화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상징적 표현과 목표가 된 것이다¹⁾.

그러나 협약이 체결된 2005년 이후 한국사회의 문화다양성 논쟁과 열기는 사그라지기 시작했다. 협약이 체결된 이후 정부 정책에서 별다른 후속 조치가 이어지지 않았고, 시민사회의 문화운동 진영에서도 스크린쿼터 보호 운동 외에는 문화다양성 협약과 관련된 전략적 대응이나 새로운 문화적 전망을 제시하지 않았다. 문화다양성 협약을 국회에서 비준하는 것도 5년 여 시일이 지난 2010년 7월에 진행

1) 문화연대 2004 “스크린쿼터 축소 검토 발언에 대한 문화연대 성명.” 스크린쿼터문화연대 2005 “전 세계 문화예술인과 함께 ‘문화다양성 협약’을 환영하며.”

되었고, 비준 과정에서도 국회나 시민사회에서 별다른 토론이나 관심이 없었다. 협약의 체결 과정에 한국의 시민사회나 정부가 보여준 적극성과 치열함을 고려한다면 협약을 비준하는 속도나 후속조치 면에서는 협약을 비준한 국가 순서인 110번째라는 위치가 모순적으로 보일 정도이다.

그러나 또 다른 역설은 한국 정부가 문화다양성 협약을 국회가 비준한 것에 그치지 않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다양성 증진법)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협약 체결 후의 오랜 정책적 대응 부재를 생각하면, 문화다양성 증진법의 발의가 의아한 면도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은 2014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제정되었고 이에 근거한 후속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 글은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의 의미와 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면서 이 협약이 한국사회에 갖는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네스코가 문화다양성 협약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작성하고 국제사회의 함의를 모은 여러 문서들을 검토함으로써 문화다양성 협약의 의미와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문화다양성 협약 체결 과정에서 한국사회가 경험한 다양한 주장과 운동이 협약 체결이후 아무런 후속 작업을 진행하지 못한 이유를 살필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다양성 협약의 국회 비준과 문화다양성 증진법 제정이 한국사회에 제기하는 과제가 무엇인지도 살펴볼 것이다.

II. 문화다양성 개념의 발전과정

유네스코는 풍요로운 문화다양성의 확보가 평화의 문화 구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관점을 창립 이래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유네스코가 문화다양성 의제를 구축해 온 과정을 유네스코 본부는 공식 문서를 통해 분석하고 의제를 구축해 왔다. 이 보고서는 유네스코 본부의 문화정책 및 문화 간 대화 부서 책임자인 스테누(Katérina Stenou) 박사가 대표 집필자로 세 차례에 걸쳐 작성했다(Stenou 2000, 2004, 2007). 유네스코는 이 보고서를 통해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의제 수립과정에서 작성된 협약, 문서, 회의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며 문화다양성 관련 의제를 개발하고 확대시켜 왔다. 이 보고서는 매번 발표될 때 마다 기존의 내용을 수정하며 보완해 왔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07년 보고서는 이 전 보고서의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특히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논의 발전 단계를 기존에 네 단계로 구분했던 것을 다섯 단계로 세분했다.

유네스코가 2007년 발간한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이슈: 검토 및 전략, 1946-2007』 보고서는 기존 보고서와 달리 문화다양성 개념의 발전 단계를 다음과 같은 5단계로 분석한다(Stenou 2007: 75-77). 대표 저자인 스테누 박사가 주목하는 것은 문화의 개념과 기능에 대한 의미를 유네스코가 어떻게 확장해 왔는지 규명하는 것이고 이를 다음과 같은 단계 구분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문화와 지식의 단계: 유엔과 유네스코의 설립은 국민국가 단위에 근거했고 평화의 구축도 국민국가 간의 평화를 의미했다. 따라서 문

화 역시 개별 국민국가 단위로 이해되었고, 문화의 차이는 국가 단위 문화의 차이로 인지되었다. 이 시기 문화는 예술 작품과 그 생산 과정으로 이해되었을 뿐 사고양식이나 감정이나 인지 양식 혹은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것으로서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시기 유네스코의 활동은 문화 지식을 생산하고 이를 전파하여 국가 간 문화지식의 교류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게 했다. 또한 다양성과 관련해서는 총회나 위원회에서 지리적 배분을 고려하는 수준이었다(Stenou 2007: 81-82).

문화와 정치의 단계: 탈 식민의 시기로 1950년대에서부터 1966년 “국제문화협력의 원칙 선언”시기이다. 이 시기 레비-스트로스는 1952년 유네스코에 제출한 글에서 다양성의 문제를 문화 간의 상호관계(inter-relations of cultures)에서뿐만 아니라 개별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내부 집단의 문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Levi-Strauss 1952; Stenou 2007: 88에서 재인용). 레비-스트로스의 주장은 다양성의 문제를 “다양성 속의 통합(unity-in-diversity)”(Stenou 2004: 6) “차이와 통합(difference and unity)”(Stenou 2007: 89)의 관점에서 보게 만들었다.

이 시기에 문화는 국가별 정체성의 상징으로 표현되었고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독립성과 고유성을 나타내기 위한 문화정체성의 강조가 두드러졌다. 문화가 정체성의 형성과 재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냉전체제 속에서 이념투쟁도 강화되었다.

문화와 발전의 단계: 1966년 “국제문화협력의 원칙 선언” 이후부터 1998년 “발전을 위한 문화정책 스톡홀름 정부 간 회의”까지의 시

기이다. 이 시기 문화 개념은 내생적 발전(endogenous development) 개념과 연계되면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유네스코는 국제협력을 위한 문화 개방에 치중했다. 연구와 정책 입안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시기이다. 1982년 “멕시코시티 세계문화정책회의”에서 문화개념을 “예술과 문학에 한정되지 않고 인간의 생활양식과 기본적인 권리들을 포함하여 한 사회나 사회집단을 설명해주는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정서적 특질들의 복합체 전체”로 정의한 것은 획기적인 성취이다(UNESCO 2009[2010]: 3).

문화와 민주주의의 단계: 문화와 민주주의의 개념을 연계하기 시작한 시기로 1980년대에 시작되었다. 국가 간 뿐만 아니라 국가 내의 문화적 관계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민주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국가들이 문화적 열망과 토대를 고려할 것을 권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민자 공동체의 차별과 배제에 대한 문제제기, 원주민의 권리에 대해 이론적, 실천적 논의의 필요성, 그리고 문화적 배경이 다른 개인과 집단이 상호 공존에 대해 의제를 제기해 왔다.

문화와 전지구화 단계: 2000년대 들어 전지구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전반적 전략과 개념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해 졌다. 이 시기 문화 개념은 문화 특히 풍요로운 문화 다양성이 지속가능발전, 안보, 평화, 사회통합(social cohesion)에 대한 공헌과 연계되어 논의되기 시작했다. 문화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정치적 의제에 포함되기 시작했고, 문화 간 대화가 문화다양성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적 과제들을 극복하는 수단

으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즉 다양하고 역동적인 복수의 문화적 정체성(다중정체성)을 지닌 사람들 간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보장하고, 시대와 공간에 따라 문화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방식과 유형의 다양함, 그리고 창조적 다양성을 보호하는데 문화 간 대화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관심이 재고되었다.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국내 연구자의 연구에서는 유네스코의 세 차례 보고서 중 2000년 보고서가 소개된 바 있다(조옥라 외 2013, 김규원 2014: 17). 유네스코가 2007년 새롭게 정리한 보고서에서는 제5단계로 문화와 전지구화 단계가 추가되었다. 이 단계는 현대 사회의 급속한 발전으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법과 전략에서 근본적 변화를 겪고 있는 단계로 설정되었다.

이 단계 구분과 시기 별 특징에서 주목할 사항은 유네스코가 문화개념의 확장과 의미 구성에 오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유네스코의 세계인권선언(1948)에서는 개인의 문화적 권리를 인권의 중요한 요소로 포함시켰다. 이 선언은 모든 사람이 문화생활 참여권과 문화향유권을 지니며 자신의 문화적 창작물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 선언의 문화개념은 1982년 “멕시코시티 세계문화정책회의”로 연결된다. 이 회의에서 문화는 새롭게 정의되는데, 문화는 곧 “예술과 문학에 한정되지 않고 인간의 생활양식과 기본적인 권리들을 포함하여 한 사회나 사회집단을 설명해주는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정서적 특질들의 복합체 전체”로 규정되고 있다(UNESCO 1982b). 예술과 문학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활양식을 포괄하는 문화개념은 문화다양성 선언으로 발전했다. 한국의 문화다양

성 논의에서 문화 개념을 협의의 문화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은 위에서 살펴 본 유네스코의 노력을 고려할 때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III. 문화다양성 협약의 제정 과정

유네스코가 1952년 채택하고 1955년 발효시킨 ‘세계저작권협약’은 문화적 표현물들의 저작권을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 의식을 태동시켰고 국제사회가 국가 간 전쟁과 같은 위기에서도 각국의 문화유산을 함께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발전되었다. 유네스코가 1954년 ‘무력충돌 시의 문화유산 보호협약’(헤이그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낸 것은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구체화되는 시발점이 되었다(유네스코 2010: 29).

문화다양성 확보를 위한 유네스코의 노력은 다음과 같은 선언과 협약을 통해 발전해 왔고, 2001년 ‘문화다양성 선언’과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 체결로 이어졌다.

- 국제 문화협력의 원칙에 대한 선언(1966).
- 문화적 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무허가 수입, 수출 및 교류방지를 위한 방법에 대한 협약 (1970).
- 세계문화와 자연 유산의 보호에 대한 협약(1972).
- 일반대중의 문화생활에 대한 참여 및 기여에 관한 권고(1976).
- 인종과 인종차별적 편견에 대한 선언(1978).

- 문화정책에 관한 멕시코시티 선언(1982).
- 전통문화와 민속 보호에 대한 권고(1989).
-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 보고서(1995).
- 문화적 권리에 대한 초안 선언(1997).
- 발전을 위한 문화정책 정부간회의(1998).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2001).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2005).

‘국제문화협력의 원칙에 대한 선언’(1966)은 “각 문화는 보호받고 보존되어야 할 존엄성과 가치”를 지니며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발전시킬 권리와 의무를 지니며 모든 문화는 전 인류에 속하는 공동유산의 일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유네스코 2010: 29). 각국의 문화가 개별 국가만의 소유나 향유 대상이 아니라 전 인류의 공동유산이라는 시각은 이후 ‘세계문화와 자연 유산의 보호에 대한 협약’(1972)에서 인류의 유산을 국제사회가 함께 보호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구체적 행동 규범으로 발전했다.

‘일반대중의 문화생활에 대한 참여 및 기여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on Participation by the People at Large in Cultural Life and their Contribution to it)’는 1976년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19차 총회에서 결의된 문건으로 1966년 국제문화협력의 원칙에서 선언된 바 ‘모든 문화는 그 자체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정신을 계승한다. 따라서 이 권고안은 문화의 개념을 확대하여 집단과 개인의 생활양식과 예술 활동 모두에서 문화의 창의성과 표현을 포함해야 한다고 정의했다. 또한 일반 대중의

문화생활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관련 정책을 언급한다.

‘인종과 인종차별적 편견에 대한 선언(Declaration on Race and Racial Prejudice, 1978)’은 1978년 제20차 파리 총회에서 결의된 것으로 문화적 차이가 인종적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인류가 이룩한 서로 다른 성취는 해당 민족의 ‘지리적,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에 기인하는 것임으로 그러한 차이로 위계적 질서를 만들어 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멕시코에서 1982년 열린 ‘세계문화장관회의(세계문화정책회의)’는 1970년 베니스 회의 이후 유네스코에서 견지해 온 노력들을 인정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가 주관한 세계문화정책회의에 참가한 장관급 대표들은 문화와 문화정체성의 개념 정립을 위한 토론을 시작으로 문화 차원에서 발전(개발) 개념, 문화 민주주의, 문화유산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문화정책의 수립을 위한 가치와 원칙에 대해 토론했다(UNESCO 1982a). 멕시코 세계문화장관회의 선언문은 이후 문화 다양성 논의에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1982b).

1. 문화 다양성과 발전: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Our Creative Diversity)』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과 직접 관련된 초기 문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유네스코가 1995년 세계문화발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Culture and Development)에 제출한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Our Creative Diversity)』(UNESCO 1995)이라는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과거 문화 보존에만 집중하던 배타적 시각을 탈피하여 문화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 곧 해당 국가나 지역, 그리고 인류 사회

의 중요한 발전 전략이라는 적극적 관점을 가져야 함을 강조했다.

문화 다양성과 관련해서는 레비스트로스(Lévi-Strauss)의 글을 인용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 문화의 진정한 공헌은 그 문화가 개별적으로 생산해 낸 발명 목록이 아니라 다른 문화와의 차이점에 있다. 한 문화의 개별 구성원들이 다른 문화의 구성원들에게 느껴야만 하는 감사와 존경은 다른 문화가 셀 수 없는 면에서 자신들의 문화와 다르다는 인식에 기초한다”(UNESCO 1995: 29). 즉 개별 문화가 성취한 발명 목록 보다는 문화 간 차이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자세가 문화다양성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이 제시한 공헌 중 하나는 “문화의 다양성과 다원성은 생물학적 다양성이 갖는 이점에 비견되는 장점을 갖고 있다”(UNESCO 1995: 54)는 것을 토대로 문화다양성의 중요성과 보호 필요성을 설득했다는 점이다. 지구 환경에서 생물 다양성이 인류의 생존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는 이미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문화 다양성도 생물다양성과 마찬가지로 인류 사회에 이익이 되며 필수적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논리는 이후 문화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주장의 논리적 근거로 자리 잡았다.

생물다양성 보존 정책이 자연의 생태계 보호와 생물다양성을 위해 필요하듯이, 오직 적절한 문화 정책만이 창조적 다양성의 보존을 보장하고 문화적 동질화의 위험을 막을 수 있다(아리스페 외 2008: 114).

그러나 문화다양성을 생물다양성에 비유한 것은 그 필요성과 시급

성에 대한 공감을 만들어내는 데는 기여했으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대책과 전망에서는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즉 종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서로 섞일 수 없는 환경을 유지하거나 종의 순혈성을 강조하는 생물다양성 대책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의 대책과 상반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논문의 뒷부분에서 후술할 것이다.

2. 발전을 위한 문화정책 정부간회의(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for Development)

세계문화발전위원회가 제출한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 이후 문화 다양성 논의에서 중요한 기여를 한 문건은 1998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발전을 위한 문화정책 정부간회의’ 결과이다. 세계문화발전위원회가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 보고서』에서 문화와 발전의 관계를 새롭게 볼 것과, 정책 영역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장관급 회의를 제안한 바 있다. 스톡홀름 회의는 스웨덴 정부가 이를 수용하여 정책 담당자와 시민사회 대표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스톡홀름 회의는 ‘발전을 위한 문화정책 실행계획’을 수립·발표하면서, 회원국들에게 다음과 같은 5가지 정책 목표를 제안했다.

- 문화 정책을 발전 전략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간주해야 한다.
- 문화생활에서 창의성과 참여를 증진해야 한다.
- 문화유산(무형 및 유형유산, 동산 및 부동산 분야 유산)의 보존과 선양 그리고 문화산업의 증진을 위한 정책과 조치를 강화해

야 한다.

- 정보화 사회에서 문화 및 언어 다양성을 증진해야 한다.
- 문화 발전을 위해 가용한 인적, 재정적 자원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

스톡홀름 회의에서 제안된 행동 목표는 이후 캐나다의 문화부 장관인 실라 콕스가 1998년 비공식적으로 개최한 오타와 회의에서 전기를 맞이한다. 오타와 회의 다음해인 1999년 ‘문화정책 국제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on Cultural Policy; INCP)’가 조직되었고 시민 사회나 학계 그리고 예술가와 문화생산자들이 참여하는 ‘문화다양성 국제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for Cultural Diversity; INCD)’의 발족으로 이어졌다(Obuljen 2006: 25-26).

이 두 조직은 전지구화가 문화 영역에서 발생시키는 변화에 우려를 표명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공조를 취해 왔다. 특히 문화다양성과 관련하여 국제법적 강제력을 갖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캐나다에서 발족된 ‘문화다양성 연대(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 또한 2001년과 2003년 두 차례의 총회를 통해 문화 다양성에 관한 법적 구속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치적 담론을 만들어 나갔다(Obuljen 2006: 26).

3. 유네스코 심포지엄 ‘문화: 특별한 형태의 상품인가?’

유네스코가 1999년 조직한 심포지엄(Culture: a form of merchandise like no other?)은 1998년 스톡홀름 회의의 행동계획에 따르는 것이면서 동시에 국제적 의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문화 상품에 관한 논의를

위해 개최되었다. 이 심포지엄은 유네스코프랑스위원회가 프랑스와 캐나다 정부의 지원으로 조직했다. 심포지엄에서는 3차례의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문화상품의 정의, 전지구화와 문화 다양성 증진 문제, 공공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심포지엄의 참여자들은 문화가 단지 경제적 문제나 개념으로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문화가 다른 상품처럼 취급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UNESCO 1999).

4. 세계문화다양성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문화다양성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2000년 유엔총회가 ‘인권과 문화다양성’이라는 결의문(54/160)을 채택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된다. 유엔의 결의문은 문화다양성이 인류의 문화생활을 서로 풍요롭게 해주는 자원이자, 문화가 다르고 사는 지역이 다른 전 세계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우정을 나누며 평화를 유지하는 필수적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개별 국가나 국제기구에서 문화다양성을 보장해야 하며 유엔이 인권과 문화다양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Obulgen 2006: 27).

유럽연합의 각료 이사회도 2000년 12월 ‘문화다양성 선언’을 채택하며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러한 흐름은 2001년 11월 제 3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계문화다양성선언과 실행계획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결과를 낳았다.

유네스코의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은 4개 영역 12개 조문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정체성, 다양성 및 다원주의, 둘째 문화다양성과 인권, 셋째 문화다양성과 창의성, 넷째 문화다양성과 국제연대 영역이다.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은 문화다양성이 인류의 공통 유산이며 개별 국가의 총체적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임을 강조한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27조에 정의된 것처럼 문화권은 인권의 기본적 요소임을 확인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문화다양성 선언은 문화 상품은 다른 상품들과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아야 함을 명시한다(UNESCO 2001).

문화다양성 선언은 20개의 실행계획을 제안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해 국제법상의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는 점이다. 이 권고를 토대로 구속력을 지닌 문화다양성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

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2005.

유네스코의 세계문화다양성선언은 문화다양성에 관한 국제협약의 논의를 전환시켰다. 이제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협약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후속 과제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문화다양성 협약을 위한 초안들이 여러 단체와 기구들에 의해 제안되었다. INCD (2002), INCP(2003) 그리고 캐나다의 국제무역자문그룹(Canadian Sectoral Advisory Group on International Trade)이 각기 문화다양성 협약 초안을 제시했다(Obulgen 2006: 29-30).

유네스코의 여타 협약 작성에 비해 문화다양성 협약의 초안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만들어졌다. 대부분의 협약은 수년간의 협상을 통해 초안이 만들어졌는데, 문화다양성 협약은 불과 수개월 간의 협상을 통해 초안을 완성할 수 있었다. 가장 큰 이유는 외부 전문가들

로 구성된 협약의 초안 작성팀이 뛰어난 초안을 작성했다는 점과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의 발표 과정에서 사전 문제의식이 광범위하게 공유되었기 때문이다(von Schorlemer 2012: 4).

협약 준비 과정의 쟁점을 살펴보면, 첫째, 문화상품과 문화서비스를 국가 간 교역이나 무역협정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가 제기되었다. 국제무역기구(WTO)가 2005년 체결을 목적으로 새로운 무역협정을 협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역량 발전을 위해 선진국이 취해야 할 조치나 의무를 명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셋째, 문화다양성 협약과 여타 다른 협약 간의 관계에서 문화다양성 협약이 갖는 우선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Obulgen 2006: 31-32).

유네스코는 2004년 9월, 2005년 1월에서 2월 사이, 그리고 2005년 5월에서 6월까지 세차례 정부 간 협상을 시도했다. 논의가 진전된 것은 3차 정부 간 회의에서 구성된 초안위원회가 비교적 명료하게 협약의 초안을 완성했기 때문이다(von Schorlemer 2012: 5). 협약 초안을 둘러싼 국가 간 의견 대립은 첨예했는데,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국가, 캐나다, 77그룹의 대표인 코스타리카, 유럽연합, 스위스, 중국,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변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네갈, 베냉 등이 찬성 의견을 주도했다. 반면에 협약의 문구를 조정하고 대안적 표현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한 국가들은 미국, 일본, 호주, 대한민국, 인도, 필리핀 태국, 이스라엘, 뉴질랜드, 칠레, 멕시코 등 이었다. 이들 국가 중 뉴질랜드, 칠레, 멕시코는 이미 다자 및 양자 간 무역협정에서 문화 상품 및 서비스 관련 조항들을 만들어 놓은 국가였다(Obulgen 2006: 33-34).

결국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은 제33차 정기 총회에서 191개 회원국 중 154개국이 참석해서 찬성 148표, 반대 2표(미국, 이스라엘), 기권 4표(호주, 온두라스, 니카라과, 라이베리아)로 채택되었다. 미국은 협약의 초안이 무역장벽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논리로 반대했으나 세 차례의 초안 수정과 투표에서 다른 국가들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했다.

회원국의 절대적 지지를 통해 만들어진 문화다양성 협약은 그 전문에서 문화다양성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문화다양성이 인류의 중요한 특성”(Preamble Recital 1)이며 “문화다양성이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인간의 능력과 가치를 육성해 주는 풍요롭고 다양한 세계를 창조함으로써, 공동체, 민족 및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천”(Preamble Recital 3)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은 유네스코가 문화를 이해하는 오랜 전통으로 1980년 유네스코의 보고서(UNESCO 1980: 55)에서 문화 개념을 강조하며, 다양한 문화적 표현이야말로 자신을 드러내는 인류의 필수적 구성요소라는 견해를 잇는 것이다.

둘째, 문화다양성이 세계인권선언에서 선언하고 있는 기본적 자유와 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Preamble Recital 5). 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이 세계인권선언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인권의 완전한 실현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임을 돌려 표현한 것이다.

셋째, 문화와 발전의 관계를 개별 국가나 지역 내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협력에서 정립해야 함을 강조한다(Preamble Recital 6). 지속 가능 발전의 원천으로서 문화다양성은 개별 국가 단위가 아니라 국

제사회의 공동의 가치이며,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실질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문화의 다양성은 시공간을 넘어서서 인류를 구성하는 집단과 사람들의 정체성과 문화적 표현의 다원성에서 구현된다는 점을 강조한다(Preamble Recital 7). 문화적 표현과 정체성의 밀접한 관련성은 이미 2001년 문화다양성 선언에서 강조된 바 있다. 문화를 창조하고 전파하며 문화를 표현해 내는 능력뿐만 아니라 문화적 표현의 고유함과 다양성 그 자체도 인류의 중요한 특성이라는 것이다(Stoll et. al. 2012: 43).

이러한 재인용과 언급은 문화다양성 협약에서 담고자 한 문화의 개념과 문화다양성의 의미를 유네스코가 지향해 온 문화의 의미와 가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IV.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과 증진을 위한 협약’을 통해 본 문화다양성 개념의 이해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의 체결은 문화다양성의 의미와 가치를 개념화하는 오랜 노력과 토론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문화와 정체성의 개념, 문화와 발전의 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의미를 축적하고 확대해 온 논의는 2001년 문화다양성 선언에서 그 빛을 발하게 되었다. 문화다양성 선언은 전문에서 문화를 “사회와 사회구성원들의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징의 총체”이며 “예술 및 문학뿐만 아니라 생활양식, 함께 사

는 방식, 가치체계, 전통과 신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UNESCO 2001, 조옥라 외 2013: 43에서 재인용). 문화다양성 선언에서 말하는 문화다양성은 이러한 광의의 문화개념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2005년 문화다양성 협약은 문화다양성 선언을 구속력 있는 협약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표현 즉 문화산업 혹은 문화상품이라는 구체적 대상으로 문화다양성의 사례를 국한시킨 면이 있다. 실제 체결 과정에서 벌어진 국제사회의 찬반 논쟁과 협상 역시 문화상품의 예외성 인정이라는 협약에 집중되어 문화다양성의 의미를 축소시킨 아쉬움이 있다.

협약 체결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예외 인정 여부는 전지구화와 자유무역의 확산이 문화다양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인식에서 제기되었다. 이 시기 무역협정과 반대론자들의 입장은 문화상품 역시 예외 없는 개방과 자유무역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추세가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영화산업의 스크린쿼터 의제가 문화다양성 협약의 상징적 슬로건이 되기도 했다. 국제법상의 구속력을 갖는 협약을 체결하는 일하기에 문화다양성의 정신이나 이념에 대한 토론보다는 실행 부문에서의 조항과 규정이 더 우선되는 형국이 된 것이다.

이러한 논쟁 구도는 문화다양성 협약을 자국의 문화산업을 보호하고 개별 국가가 문화정책 수립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축소시키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문화다양성 협약이 무역 문제의 틀에 구속되는 바람에 문화다양성의 구현과 실천을 위한 보다 광범위한 문제의식과 전망이 약화된 것이다(Obulgen 2006: 20).

따라서 문화다양성 협약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문화

다양성 혹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위에 문화다양성의 몇 가지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1. 문화다양성 개념과 문화 개념

앞에서 문화다양성 개념이 확장되어 오는 과정에서 문화 개념이 단계별로 재 정의되거나 새로운 의미에서 적용되기도 했다. 문화다양성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1982년 멕시코시티 문화정책회의를 통해 만들어진 선언과 문화다양성 선언의 전문에서 언급한 문화개념의 이해이다. 문화다양성 협약이 문화적 표현 즉 문화적 창작물의 시장 예외성을 강조하다 보니 문화 개념을 예술과 문학에 한정해서 이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다양성 협약의 정신인 문화다양성 선언이나 그 이전 유네스코가 발전시켜온 문화개념은 인간의 생활양식과 기본적 권리를 포함하는 복합체 전체로 보는 넓은 의미의 문화개념이다. 따라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은 이러한 문화의 다양성을 자원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인정해야 하고, 문화다양성 협약을 보다 넓은 의미의 문화개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실제 문화다양성 협약 전문에도 “문화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다양한 양식을 가지며, 그 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는 사람과 사회의 정체성과 문화적 표현의 독특성과 다원성에서 구현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전통지식체계’,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의 중요성’등이 언급되고 있다. 협약의 전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문화다양성이 단순히 문학과 예술 등 문화적 창작물, 문화상품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다.

협약은 또한 특정 사회 ‘내부의’ 다양성이나 혹은 국가 간 다양성 인가에 대한 논쟁도 제기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전지구화의 변화가 대부분의 사회에 인적구성이나 문화적 교류에 있어 다양성의 급증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사회는 과거와 달리 사회 내부의 다양성이 증대되었다. 협약의 전문은 “소수자와 토착민(원주민)”의 문화 생명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는 문화 내 다양성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반면에 어떤 사회는 여전히 국가 간 혹은 사회 간 다양성이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문화다양성을 민주주의의 개념과 연계하여 이해한다면 사회 내의 다양성, 심지어 동일 문화 내의 다양성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2. 문화다양성은 생물다양성과 동일한 의제인가?

문화다양성의 중요성과 의미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생물다양성을 비유로 설명하는 논리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특히 사라져가는 언어의 문제는 언어를 멸종되는 생물과 같은 문제로 설명되었다.

지난 수 세기에 걸쳐 특히 유럽 식민주의 시대가 시작된 15세기 이래로 이미 수 백여 종의 언어가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이러한 경향은 국가적 동화정책과 경제적 세계화를 통해 균질화 하려는 압력 아래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 되고 있다. 사실상 1,000명 이하가 사용하는 언어 모두가 이러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언어도 동일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 중 많은 언어가 몇몇 연장자들만 사용하여 거의 소멸 상태에 도달해 있다. 현재 사용되는 언어

의 6-11%가 ‘멸종 직전(nearly extinct)’ 언어로 분류된다(Maffi 1998; King et. al. 2005: 31에서 재인용).

멸종되는 언어는 소멸되는 문화다양성의 상징이다. 따라서 풍요로운 문화다양성의 모습도 생물다양성에 비추어 설명된다.

지구 생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 엄청난 다양성에 있다. 지구상 생물의 다양성은 자연에서 발견되는 동식물종과 생태계의 다양함(생물다양성)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의 다양한 문화와 언어(문화 및 언어다양성)의 다양함으로 구성된다.언어, 문화, 환경 간의 연계는 지구상 생명 다양성이 서로 다르지만 긴밀히 관련된 표현으로서 생물, 문화 및 언어 다양성이 함께 연구되어야 함을 이야기 한다. 생물문화 다양성(biocultural diversity)이란 용어는 이러한 새로운 분야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였다(King et. al. 2005(2003): 11)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을 같은 범주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관점은 ‘생물문화다양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냈다.

생물문화적 관점은 다음과 같이 형성되었다. ‘생태적 다양성’은 지구의 장기 생존에 필수적이다.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 식물, 동물, 박테리아, 인간은 복잡하고 섬세한 관계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생존하고 번영한다. 생태계의 요소 중 하나에 해를 입히면 전체 체계에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 종들이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유전적으로 적응하면서 진화는 유전적 다양성의 도움을 받아 왔다. 다양성은 적응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단일성은 비응통성과 비적응성으로

한 종을 위협에 처하게 할 수 있다. 언어 다양성과 생물다양성은 분리될 수 없다. 언어와 문화가 사멸하고 인간의 지적 성취에 대한 증언이 줄어들어 따라 서로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줄고 있다.

생태학적으로 이야기 하면 가장 다양한 생태계가 가장 강한 생태계이다. 다시 말해, 다양성은 안정성과 직접 관련되며 장기 생존에 중요하다. 지구에서 우리가 거둔 성공은 수 천년 동안 여러 다른 종류의 환경(문화 환경과 대기 환경)에 적응한 능력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은 인류의 성공과 적응성의 기회를 극대화한다(Baker 2001: 279-283; King et. al. 2003: 12에서 재인용).

그러나 생물다양성 개념이 과연 문화다양성 개념을 전적으로 이해시키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정책이나 전략이 문화다양성 보호에는 적합하거나 적용할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가장 적극적 방법은 종들의 오염 혹은 혼종을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분리하고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문화다양성은 개별 문화 혹은 개별 문화 내의 다양한 요소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와 여건을 보장해 주는 것이 기본 방향이며 이를 위해 다른 문화와의 상호작용이나 문화 전파나 차용에 있어 역동적 과정을 보장해 줘야 한다. 레비스트로스가 “다양성은 고립된 집단이 가지는 기능이기보다는 통합된 집단들이 서로에 대해 가진 기능”(아리스페 외 2008: 84)임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레비스트로스는 일찍이 유네스코에 제출한 문건에서 보존해야 하는 것은 ‘다양성 그 자체이지 각 시대가 다양성에 덧씌운 외형이

나 가시적인 것'은 아니며 문화다양성을 보호하는 것이 특정 문화의 현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Lévi-Strauss 1952). 레비스트로스의 주장을 문화다양성에 연결하면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은 특정 시기의 문화다양성을 화석처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문화 내 다양성이 그리고 문화 간 다양성이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문화적 실천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동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틀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은 다양성의 보호라는 동일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추진 전략은 다를 수밖에 없다.

3. 문화다양성과 보편적 가치: 문화상대주의와 인권

문화다양성과 인류 사회의 보편적 가치가 갖는 관계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이 보편적 가치의 확산과 위배된다는 문제제기도 있지만, 냉전 체제하의 동구와 서구 그리고 기독교와 이슬람 같은 종교적 대립 구도 하에서 상대방에 유리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방편으로 다양성이 활용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문화상대주의는 보편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명분으로 남용되기도 했다.

이러한 정치적 공세는 보편적 인권을 강조하는 세계인권선언에서조차 '국제 규범의 설정에 있어 국가 및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한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건을 첨부하게 한다(Smiers 2006: 351-352).

문화다양성이나 문화상대주의가 본질적으로 보편주의와 공존할 수 없는 개념으로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인류학자들이 문화의 개

념과 속성을 연구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문화의 보편성과 다양성이 분리할 수 없는 속성이라는 것이다. 인류가 문화의 다양성 속에서 서로 소통하며 풍요로운 문화적 성취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근거는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의 보편성 때문이다.

인권을 비롯한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며 문화다양성을 내세우는 경우는 대부분 자신들의 문화 요소가 갖고 있는 억압과 차별을 합리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화다양성 개념이 민주주의와 연계되어 이해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V. 한국 사회와 문화다양성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 체결을 계기로 한국사회에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시작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문화다양성 협약 체결과정이 신자유주의에 의한 국제사회의 재편과 함께 진행되었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의 대응과 인식은 당시의 국제정세 맥락에 머물러 있었다. 즉 한국 사회의 문화다양성 논의가 한국 사회 내부의 문화 환경에 대한 성찰과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문화의 세계화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문화의 확산에 대한 반발과 저항에 참여하며 시작된 것이다.

문화다양성 협약 체결 당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무역협정에서 미국은 문화 분야의 완전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미국의 경제논리에 대항하는 국가들 특히 프랑스를 주축으로 하는 반대 진영은 세계문화연대기구(CCD)와 세계문화NGO총회(INCD) 등

을 결성하며 문화 분야의 예외성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논리’와 ‘문화논리’의 대립 속에서 한국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상보적인 역할 분담을 하며 협약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논쟁에 참여했다. 시민사회는 적극적으로 ‘문화논리’에 가담하여 집회와 세미나에 참여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문화논리’를 주장하는 국가와 시민단체들이 한국의 스크린 쿼터 제도에 주목하며 문화가 무역협정에서 예외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국의 스크린 쿼터 제도가 중요한 제도로 부각되자,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문화연대, 민예총 등의 단체가 한국의 문화다양성 논의를 주도하기 시작했다. 영화계는 스크린쿼터 제도 유지를 위해 유명 감독과 배우들이 앞장서서 스크린쿼터 제도 사수운동에 참여했다. 결국 한국에서의 문화다양성 운동은 스크린 쿼터 제도에 집중되게 되었다.

한국의 문화다양성 운동이 스크린쿼터 제도로 상징되는 문화산업의 예외성에 초점을 맞추게 된 배경은 WTO 체제와 자유무역협정을 주도하는 ‘미국화에 대한 반대’를 들 수 있다. 문화연대 운동에 참여했던 이론가들 역시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이동연 2008: 243, 이원재 2014). 이러한 현상은 한국 사회로 하여금 문화다양성 협약의 의미와 내용을 전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스크린 쿼터제도나 문화산업의 발전과 보호라는 현상으로 축소되어 이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문화산업과 관련된 영역에서조차 문화다양성 운동이 국가 간 또는 미국과 미국의 ‘경제논리’에 대항하는 국가 간 문화산업의 예외성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게 되었다. 즉 개별국가 내에 존재하는 문화산업의 강자와 약자 간의 관계가 의도적으로 배제된 것이다. 예를 들면 스크린쿼터 제도가 할리우드 영화산업의 공

세를 막아내긴 했지만, 국내 영화산업의 약자와 소수 영화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역설이 생긴 것이다. 즉 다양성의 의미를 일률적으로 국가 간 다양성에 국한시켰기 때문이다(이동연 2008: 242-243).

이러한 모순은 곧 한국사회에서 문화다양성의 문제의식과 의제가 사라지게 되는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협약 체결이후 급속도로 진행된 무역협정 협상과 회의에서 시장 개방의 핵심적 안건으로 농산물(쌀) 등이 대두되면서 신자유주의와 자유무역주의의 확산에 반대하는 운동에서 문화산업이나 문화주권의 논의는 약화되었다. 이동연(2008: 243)은 문화운동 진영이 자유무역협정 반대 투쟁에서 구체적인 실천 의제를 제시하지 못했고, 문화다양성 협약의 체결과 같은 국제적 의제를 실행하는 전략이나 프로그램의 제시에 실패한 것이 패착이었음을 지적한다.

또한 문화다양성 협약의 타결이후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스크린 쿼터가 축소되자 문화다양성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도 약화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도 소고기의 수입이 상징적 쟁점이 되면서 문화산업 분야는 묻혀버리게 되었고, 협정이 체결된 후에는 문화다양성 차원에서 문화산업 예외 논쟁이 한국에서 급속도로 약화되었다.

문화다양성 논의가 사라지게 된 또 다른 이유는 2006년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시작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다.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 혹은 다문화주의 담론으로 논의의 장이 채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문화다양성 논의를 대체했다. 문화 간 대화나 이해의 과제는 다문화 교육이 실행할 것으로 기대되었고, 인권, 복지, 교육 등의 영역에서 다문화 담론이 모든 것을 흡수해 나갔다.

한국사회의 ‘다문화 열풍’²⁾(한건수 2009)은 곧 정책의 목적과 내용, 각종 사업의 실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기 시작했다. 다문화 담론이 한국사회 전반의 문화적 전망과 연결되지 못하고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이주민 정책으로 축소되거나 다문화가족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문화다양성 선언과 협약이 강조하는 가치와 정신을 포괄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한국사회의 다문화열풍이 가져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다양성 개념과 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한건수 2009, 2012, 2014; 한건수·한경구 2011). 즉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이나 고려가 없는 다문화 교육 혹은 다문화 지향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자각이 일어났다.

정부가 2014년 5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된 데에는 이러한 문제의식도 반영된 것이다. 이주민의 증가로 인해 문화 차이나 다문화 사회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으나 다문화사회 담론으로 한국사회 전반의 문화적 전망을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고민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총 15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지난 10여 년간 한국사회에서 벌어진 다문화사회 관련 계몽과 홍보, 정책적 대응을 둘러싼 담론의 활성화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실질적 토론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벤트 성 사업이나 온정주의적 감성의 확산에 치우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사용한 용어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건수(2009)를 참조할 것.

- 유네스코 협약을 기반으로 한 ‘문화다양성’ 및 ‘문화적 표현’의 정의
-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문화다양성 증진 및 보호 기본계획 수립·시행
- 국무총리 소속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 협약에 따른 유네스코 국가보고서 작성·제출
-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및 연차보고
- 문화다양성의 날 지정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역시 문화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질적 장치를 구비하기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한국사회에 적합한 문화다양성의 영역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통해 문화다양성 현황과 정책 과제를 발굴하며, 한류와 같은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응을 포괄하고 있다.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법을 실행하기 위한 시행령도 마련되었고 그에 따라 정부는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및 문화다양성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과 콘텐츠를 연구 개발하고 있다(한경구 외 2015). 문화다양성이 발현되는 한국 문화의 영역으로 ‘소득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의 문화차이’를 논의하고 있고 ‘소수자 집단(노인, 장애인)³⁾, 청소

3)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한국사회의 논의 중 장애를 문화다양성의 중요한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창의한국』(2004)에서 문화다양성의 주요 영역으로 처음 언급된 이래 문화다양성과

년, 여성 등)의 문화와 주류 문화' '도시와 농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의 전례를 고려해 보면 한국사회에서도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전망이 자칫 법안의 구체적 규정에 의해 축소되거나 일부가 확대되어 인식될 우려가 있다. 실제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 사업을 문화관광체육부의 지역문화과가 주도하면서 문화예술교육이나 지역문화 단체를 위한 재정보조 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무지개다리 사업'처럼 지역문화재단을 위한 교부금 성격이 큰 사업에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좁은 의미의 문화 개념(문학과 예술 등)에 근거한 문화다양성 사업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 무지개다리사업에 응모한 문화재단 활동가들이나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은 문화다양성 사업을 다문화 관련 사업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무지개다리사업 관련 심사나 보고회에 참여하여 문화재단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보고서를 평가할 기회가 있었다. 대부분 특히 무지개다리 사업 초기의 프로젝트들은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주민이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간 다양성에 치중하고 있었다. 공연, 예술, 문학 분야의 예술가들이 추상적인 문화다양성 개념을 구체화하느라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관련된 후속 논의에서 동일하게 고려되고 있다. 물론 장애가 문화다양성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지만 한국의 현실에서 장애 문제는 문화다양성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인권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즉 문화다양성 영역에서 장애가 별도의 범주로 제시되기 보다는 다양한 소수자 집단의 하나로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국제이주로 인한 한국사회의 변화로 인해 다문화주의나 다문화주의적 가치가 한국 사회에 도입되었지만 실행과정에서 ‘이주민’에게만 국한된 개념으로 왜곡된 전례가 있듯이 문화다양성 역시 좁은 의미의 문화개념에 근거하여 ‘다양성 영화’나 ‘이주민 관련 문화 사업’처럼 몇몇 고착화된 의미로 수용될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문화다양성 협약 가입 무렵의 문화운동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문화다양성을 단순한 문화산업의 공격과 방어 논리에 적합한 개념으로 이해할 우려도 있다. 한국 사회 내부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그러한 다양성을 토대로 자연스럽게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이 증가해야 하는데, 지금의 상황은 서구의 대중문화나 영화를 대표로 하는 문화상품에 대비되는 인위적이고 제한된 특정한 장르와 양식의 문화상품을 보호하는 것이 문화다양성의 증진이라고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다.

문화다양성은 그동안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경향이 강했던 한국사회에 실질적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자원이자 전략적 개념으로 수용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 전반의 문화적 전망으로서 이주민이 아닌 한국사회의 모두를 포괄하는 전망이 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에서 제안하고 있는 문화다양성의 영역들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유네스코는 문화다양성 협약의 발전적 토론에서 언어, 교육, 커뮤니케이션과 문화콘텐츠, 창의성과 시장, 문화와(지속가능한) 발전, 문화와 민주주의, 인권과 민주적 거버넌스 등과 같은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UNESCO 2009). 이러한 보편적 기준이나 가치가 한국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묻고 확인하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한국사회 내부의 다양성의 자원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한국 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특히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문화개념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규원(2014). **국의 문화다양성 정책 사례조사 및 분석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규원 · 한건수 · 최보연 · 전병태(2014).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이행 국가고보서 작성연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류정아(2014).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기초연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관광부(2004). **창의한국**. 서울: 문화관광부.
- 아리스페, 로우르데스 외(2008). “문화다양성, 갈등, 다원주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이동연(2008). “문화다양성과 문화적 권리를 위한 문화운동,”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편,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이월재(2014) “토론문: 문화다양성 정책의 현황 및 새로운 가능성,”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제11회 문화예술지식정보DB 콜로키움. 2014.10.21.
- 조옥라 · 한경구 · 이정덕 · 유철인 · 임경택(2013).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전략수립 방안 연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한건수(2009). “한국사회의 다민족화와 ‘다문화 열풍’의 위기” 한국학술협의회 편, **지식의 지평, 제7호**, 192-208.
- _____(2012). “통합과 분열의 기로에 선 한국의 다문화 정책” 한국학술협의회 편, **지식의 지평, 제13호**, 64-86.
- _____(2014).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 혐오증과 실패론: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윤인진 · 황정미 편, **한국다문화주의의 성찰과 전망**. 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출판부

- 한건수 · 한경구(2011). “다문화주의를 넘어서 문화다양성과 국제이해교육으로, **국제이해교육연구**, 6(1): 1-33.
- 한경구 · 양일모 · 한건수 · 정은주(2015).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지침서**. 나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Baker, C.(2001). “Book Review of Tove Skunabb-Kangas 2001 Linguistic Genocide in Education - or Worldwide Diversity and Human Rights?” *Journal of Sociolinguistics*, 5(2), 279-283.
- King, Linda, T. Skutnabb-Kangas, L. Maffi, and D. Harmon(2003). *Sharing a World of Difference: the Earth’s Linguistic, Cultural, and Biological Diversity*. Paris: UNESCO. [2005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역, **지구의 언어, 문화, 생물 다양성 이해하기**.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Lévi-Strauss, C.(1952). *Race and History*. Paris: UNESCO.
- Obuljen, Nina(2006). “From Our Creative Diversity to the Convention on Cultural Diversity: Introduction to the Debate,” In Obuljen, Nina and Joost Smiers (eds.) *UNESCO’s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Making it Work*. Zagreb, Croati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Relations.
- Stoll, Peter-Tobias, Sven Mißling, and Johannes Jürging(2012). “Preamble” In von Schorlemer, Sabine and Peter-Tobias Stoll eds. *The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Explanatory Notes*. Berlin: Springer-Verlag.
- Smiers, Joost(2006). “Human, Cultural Rights: Universalism and/or Cultural Relativism,” In Obuljen, Nina and Joost Smiers (eds.) *UNESCO’s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Making it Work*. Zagreb, Croati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Relations.
- Stenou, Katerina ed.
 2000 *UNESCO and the Question of Cultural Diversity, 1946-2000: Review and Strategies, A Study based on a Selection of Official Documents*. Paris: UNESCO.
 2004 *UNESCO and the Question of Cultural Diversity, 1946-2004: Review and Strategies*,

- A Study based on a Selection of Official Documents*. Paris: UNESCO.
- 2007 UNESCO *and the Question of Cultural Diversity, 1946-2007: Review and Strategies, A Study based on a Selection of Official Documents*. Paris: UNESCO.
- UNESCO(1980). *Many Voices, one world. Towards a new, more just and more efficient worl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order*. Report by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Study of Communication Problems. Paris: UNESCO
- UNESCO(1982a). *World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Mexico City, 26 July - 6 August 1982 Final Report*. Paris: UNESCO.
- UNESCO(1982b). *Mexico City Declaration on Cultural Policies World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Mexico City, 26 July - 6 August 1982*. Paris: UNESCO.
- UNESCO(1995). *Our Creative Diversity*. Paris: UNESCO.
- UNESCO(1999). *Culture: A Form of Merchandise Like No Other?* Paris: UNESCO.
- UNESCO(2001).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Paris: UNESCO.
- UNESCO(2009). *UNESCO World Report: Investing in Cultural Diversity and Intercultural Dialogue*. Paris: UNESCO. [2010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역, **유네스코 세계 보고서: 문화다양성과 문화 간 대화**.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von Schorlemer, Sabine(2012). "Introduction" In von Schorlemer, Sabine and Peter-Tobias Stoll eds. *The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Explanatory Notes*. Berlin: Springer-Verlag.
- von Schorlemer, Sabine and Peter-Tobias Stoll(eds.)(2012). *The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Explanatory Notes*. Berlin: Springer-Verlag.

Abstract

**Cultural Diversity and Korean Society:
The Significance and Future Objectives of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Han, Geon Soo

(Department of Cultural Anthropolog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the significance and future objectives of the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The Korean government and civil societies have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process of the UNESCO convention of 2005. They actively supported UNESCO and other people who promoted the convention. In addition, many culture-related NGOs lead the public opinion to support the value of cultural diversity and resist against the United States' efforts to include the cultural industry into the negoti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The Korean government's screen quarter system became the symbolic policy for the promoting of cultural diversity in the cultural industry sector.

After the convention was held, however, this fever of cultural diversity debates and activities suddenly disappeared in the Korean society. It is partially because of the shifting concern of civil society and NGOs to the Korea-US FTA talks. This paper, however, argues that the Korean civil societies and cultural movement NGOs misunderstood the concept of culture and the meaning of cultural diversity that has been pursued by

UNESCO from the beginning. To prove it, this paper analyses diverse UNESCO papers and conventions regarding cultural diversity since the 1950s.

This paper also pays attention to the enactment of the Act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Cultural Diversity (2014) by the Korean government. It scrutinies current cultural diversity related programs and suggests to consider and accept the concept of culture that UNESCO defines in various papers and conventions.

Key words : concept of culture, cultural diversity, multicultural society,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투고신청일 : 2015. 10. 31

심사수정일 : 2015. 12. 19

계재확정일 : 2015. 12. 19